



지난 1일 열린 제46회 광주일보 3·1 마라톤대회 풀코스에 참가한 마라토너들이 광주 남구 대촌 저수지 인근 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다가오는 봄의 정취를 만끽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즐거웠다, 행복했다... 모두가 챔피언

남자 풀코스 작년과 똑같은 2시간 38분 18초 우승 전국서 달림이 몰려... 하프 남녀, 충청 출신 싸움이



풀코스에 참가한 여성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역주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2시간38분18초'가 3·1 마라톤대회의 골든타임이 됐다.

안산에서 광주를 찾은 정석근(38)씨가 제 46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남자 풀코스 부문 우승자에 이름을 올렸다.

대회 세 번째 도전에 나선 정씨는 이날 2시간38분18초에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2위와는 23초 차이였다.

2시간38분18초는 지난 대회 풀코스 남자 우승자인 김동욱씨가 세운 기록과 똑같다. 2년 연속 같은 기록으로 우승자가 탄생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여자부 풀코스 우승은 3·1절 마라톤대회 하프코스 2연패에 빛나는 이정숙(46·충북 천안) 씨의 차지다. 이 씨는 지난 2008

년 3·1절 대회에 처녀 출전해 우승을 차지하는 등 2008·2009년 하프코스에서 2연패를 달성했던 전 국가대표 마라토너.

이번 대회에서 풀코스종목을 바꾼 이 씨는 마라톤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다시 한번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는 10km가 폐지되면서 풀코스, 하프코스, 5km 코스에서 6명의 남·여 우승자가 탄생했다.

하프코스는 '충청인'들이 싸움이 됐다.

3·1절 마라톤대회에 처녀 출전한 홍기표(38·대전시 서구 내동)씨가 1시간15분32초의 기록으로 남자부 우승을 거머쥐었다. 충남 공주에서 광주를 찾은 유정미(40)씨는 1시간27분29초에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여자

부 우승을 가져갔다.

유정미씨는 2년 만에 우승 타이틀을 되찾으며 기쁨이 더했다. 2009년 대회 우승자였던 유씨는 지난해 2위에 머물렀지만, 2년 만에 챔피언 자리에 복귀했다.

5km 부문에서는 광주 챔피언클럽 소속의 전재완(29·서구 상촌동)씨가 우승을 차지하며 광주의 자존심을 지켰다. 지난 대회 3위에 올랐던 전씨는 이번 대회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자가 됐다.

대구에서 온 이연숙(40)씨는 5km 여자부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풀코스가 주종목인 이씨는 처음 5km 도전해 우승의 기쁨을 안고 금의환향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3·1절 마라톤 각 부문별 입상자

▶ 풀코스 남자부

순위	이름	시간
1	정석근	2시간 38분 18초
2	김수용	2시간 38분 41초
3	최진수	2시간 43분 12초

▶ 풀코스 여자부

순위	이름	시간
1	이정숙	2시간 56분
2	정기영	3시간 03분 07초
3	김예경	3시간 19분 18초

▶ 하프코스 남자부

순위	이름	시간
1	홍기표	1시간 15분 32초
2	배정선	1시간 16분 44초
3	김재복	1시간 17분 19초

▶ 하프코스 여자부

순위	이름	시간
1	유정미	1시간 27분 29초
2	정순자	1시간 27분 41초
3	김주하	1시간 28분 45초

▶ 5km 남자부

순위	이름	시간
1	전재완	15분 27초
2	김삼성	15분 54초
3	정용원	16분 14초

▶ 5km 여자부

순위	이름	시간
1	이연숙	18분 55초
2	김정희	20분 20초
3	신영란	20분 30초

코스 무난, 참가자 배려 돋보인 명품대회

페이스메이커 팀장 박 남 균 씨의 관전기

"따뜻한 남도 풍경과 인심을 보여준 만족스러운 대회였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 대회에 참가한 광화문마라톤 클럽 박남균 호남팀장이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3·1절 마라톤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지난 1999년 인터넷상에서 모임을 시작한 광화문마라톤 모임은 2001년 1기 페이스메이커를 선발하면서 전문 페이스팀으로 전국 대회를 누비고 있다.

완주 목표시간이 적힌 빨간 풍선을 들고 달리며 '달림이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은 2005년 3·1절 마라톤 대회와 첫 인연을 맺었다. 이번 대회에도 30여명이 도우미로 나섰다.

매년 참가자들과 호흡을 맞춰온 박 팀장은 "기온이 쌀쌀해 하프코스 이하 출전자들에게는 페이스 하는데 좋은 날씨였지만 풀코스의 경우 반환점을 돈 뒤 뒷바람이 불면서 추위가 변수가 됐다"며 "또 구제역 여

파 등으로 앞서 많은 대회가 취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의 훈련량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도의 훈훈한 인심과 풍경은 참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박 팀장은 "이번 대회는 필요없는 기념품을 없애는 대신 대회 참가비를 낮추면서 마라토너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완주자들에게 간식과 양말 등을 정성스레 담아 선물하는 등 참여자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다"고 언급했다.

광주시내를 벗어나면 시원한 땀방울이 나오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 지루하지 않은



코스도 3·1절 마라톤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국에서 광주를 찾은 참가자들과 원활한 대회를 위해 힘을 더한 봉사자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박 팀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많은 참가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달릴 수 있었다. 교통 불편 등을 감수해주신 시민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